

나주쌀 '새청무', 유럽 첫 수출... 헝가리서 '러브콜'

1000톤 수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쫄깃한 식감에 씹을수록 맛 좋아
 "세계 명품 브랜드 자리매김 주력"
 물류비·포장재비 등 자체 지원도

나주쌀의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뉴질랜드에 이어 헝가리에서도 나주쌀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며 유럽 시장 개척 포문을 연 가운데, 쫄깃한 식감에 씹을수록 밥맛이 좋은 나주쌀 '새청무'의 수출 상승세가 눈길을 끈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나주쌀 '새청무' 헝가리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가졌다

헝가리 첫 수출은 올해 5월 운병태 시장



나주시는 지난 27일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나주쌀 '새청무' 헝가리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이 호주·뉴질랜드 현지 방문을 통해 글로벌 유통업체 '더퍼스트인터내셔널'과 체결했던 '나주쌀 1000톤 수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유럽 쌀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연 나주쌀

첫 수출물량은 20톤으로 이날 상차식에선 뉴질랜드 수출 계약에 따른 3차 물량 20톤을 더해 총 40톤을 선적했다.

이날 선적 행사엔 운병태 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 최명수도의회안전건설소방

위원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주양 농협중앙회 상무를 비롯한 지역 농협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운병태 시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국내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헝가리를 통해 유럽 첫 수출 결실을 이뤄낸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나주쌀이 국내는 물론 세계 명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현장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고품질 쌀 생산, 내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류비, 포장재비 등을 자체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용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수출 직불금 지급, 캐나다 농수산식품 마케팅 참여 지원 등 나주쌀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멜론·딸기 등 7억2000만원

나주시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일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작물 광합성이 필수인 시설원예농가에서 수정 불량, 품질·수량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는 지난 2월 일조량 및 품목별 피해 현황 분석, 멜론 생육불량 원인 규명 등에 힘써오며 전남도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해당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12일까지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나주시역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는 전체 396농가, 약 182ha에서 발생했다.

이중 멜론(68ha)가 30%로 가장 피해

가 많았으며 토마토 38ha(21%), 딸기 22ha(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재해 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2000만원 규모다.

시는 피해농가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한 재난지원금 국비 5억원은 8월 중 우선 지급하고 지방비의 경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르면 추석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 규모가 극심한 농가에겐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설하우스 일조량 감소 피해 예방을 위해 7억6000만원을 투입, 장기성 PO필름 설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 기관

에너지수도 조성 등 높게 평가

나주시가 2024년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 성과를 겨루는 대회다.

올해 제6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의 재

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화에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의지,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나주시는 에너지수도 조성을 위해 △에너지밸리 △에너지시티 △에너지교육 △에너지복지 4대분야로 나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나주=조대봉 기자

성북동지사협, 출산 가정 12세대에 축하 선물 전달

나주시 성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성북동지사협)가 지난 26일 출산 가정 12세대를 방문해 출산 축하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출산 축하 지원 사업 '어서와 지구별은 처음이지'는 출산과 양육 가정에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출산 세대를 방문해 축하 메시지와 5만원 상당의 출산선물(소고기, 미역)을 전달하고 있다.

한 산모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네에서 출산을 축하해주고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아동 및 지사협 위원 등 40명과 함께 화순 키즈라라를 방문해 어린이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남평읍지사협, 어린이 직업 체험 성료

나주시 남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구동주·이재덕, 이하 남평읍지사협)는 지난 27일 아동 및 지사협 위원 등 40명과 함께 화순 키즈라라를 방문하여 어린이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꿈꾸는 아이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평소 꿈꾸던 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키워

주기 위해 다양한 놀이형 직업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아동들은 소방관, 아나운서, 요리사 등 약 30여 가지의 직업 중 평소 관심이 있었던 직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승무원이 꿈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체험해보니 너무 신나고 유익했다"며 "이번 체험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동주 위원장은 "경제적 이유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이 밝고 행복하게 직업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직업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깨닫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덕 남평읍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드림스타트 '사랑담은 요리교실'

아동·부모 함께 요리 체험

나주시는 지난 12일과 24일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양육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랑담은 요리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요리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편식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인 영양 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됐다.

참여 아동과 양육자들은 또띠아 피자, 라이스페이퍼 야채전, 떡볶이, 레몬청 등



을 직접 만들면서 요리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고 요리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학부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평소 접해

보지 못했던 요리를 함께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요리교실이 아동들에게 올바른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이 이러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